대한간호학회지 제37권 제5호, 2007년 8월
J Korean Acad Nurs Vol.37 No.5, 724-735, August, 2007

장기요양 노인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한 돌봄제공자의 경험*

홍 선 우[1] · 손 행 미[2]

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2)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Family Caregivers' Experiences Utilizing a Nursing Home for Their Elderly Family Members*

Hong, Sun-Woo[1] · Son, Haeng-Mi[2]

1)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describe the experiences of the family caregivers using a nursing home for their elderly family members. **Method:**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1 man and 9 women caregivers.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from October, 2005 to April, 2006 and analyzed using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methodology. **Results:** "Finding a way to live together" emerged as a core category and it reflected expanding consciousness allowing them to see each other in a more positive view. The basic social process of "finding a way to live together" includes 3 phases: 1) recognizing the problems, 2) finding solutions to the problems, and 3) accepting the changes in their surrounding. Lack of privacy, family troubles, extreme distress, and unavailable caregivers ar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recognizing the problems. The process of finding solutions was making a decision, obtaining family agreement, choosing the best nursing home, and enduring the financial burden. Possible outcomes of the last phase include recovering peace of mind and continuing conflict. **Conclusion:** Findings from this study offer suggestions for developing a strategy to help not only the elderly but also the family caregivers.

Key words : Nursing homes, Family caregiver, Experience, Grounded theory

주요어 : 노인요양시설, 돌봄제공자, 경험, 근거이론

* 본 논문은 2007년 대한질적연구간호학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research fund.*
투고일: 2007년 5월 1일 심사완료일: 2007년 6월 4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 Haeng-Mi*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708 Seokjang-dong, Gyeongju-si, Gyeongsangbook-do 780-714, Korea
Tel: 82-54-770-2621 Fax: 82-54-770-2616 E-mail: sonhm@mail.dongguk.ac.kr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9.1%인 438만 3천명에 이르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 질환 유병율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88%가 관절염, 당뇨, 고혈압 등 1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4).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14.8%인 약 62만명이 중풍이나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있어 장기요양 보호를 필요로 하며 이 인구는 2010년에는 79만명, 2020년에는 114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4).

이렇게 급진전하는 고령화 속도와 함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는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감소와 전통적으로 돌봄 제공자로 간주되어온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노부모를 돌보는 효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의 노인부양 능력은 현저히 약화되었고 가정은 더 이상 노인환자들이 마지막 여정을 보내는 곳이 아니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전체 노인 사망의 약 20%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며 이 수치는 2020년에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Touhy, Brown, & Smith, 2005)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의식변화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실제 노인 환자들은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별거를 원하며 시설이용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비용이 해결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시설이용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Yang, 2002).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개인적 및 사회적 요구는 증가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인 환자의 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은 편이어서 장기요양 노인환자의 시설 입소를 결정한 돌봄 제공자들은 특히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 환자와 같이 만성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돌봄의 역할 수행 외에 돌봄 제공자 자신의 노화 및 건강관리상의 문제, 재정적 부담, 소외감, 외로움 등을 경험하고 있는 숨겨진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Eloise, 1994). 이에 선행연구들은 돌봄 제공자가 만성적으로 장기요양 노인환자의 돌봄에 대한 부담감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인성 질환은 물론 다양한 신체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Andre & Elmstahl, 2005; 1998, Kim, 2001). 그러므로 만성질환자 및 장기요양 노인환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의 대처나 삶의 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van Excel, Koopmanschap, van den Berg, Brouwer, & van den Bos, 2005). 그런데 Schur, Whitlatch와 Clark(2005)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돌봄 제공자의 돌봄에 대한 객관적 혹은 주관적 경험이나 반응을 양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돌봄 제공자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희생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환자들의 간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질적연구를 통해 장기요양 노인 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nursing home) 입소를 결정한 돌봄 제공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 속에 비추어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돌봄 제공자의 경험을 조명해봄으로써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환자는 물론 지지가 필요한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장기요양 노인환자를 노인전문요양시설(nursing home)에 입소시킨 돌봄 제공자들의 심층의 경험에 대한 의미체계를 이해하고 기술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장기요양 노인환자 및 가족, 그리고 다른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돌봄 과정에서 돌봄 제공자가 경험하는 기본사회화과정을 파악하여 실체이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심층 면담을 통해 가정에서 돌보던 장기요양환자를 노인전문요양시설(nursing home)에 입소시킨 돌봄 제공자들의 경험을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근거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철학적 근간으로 발달되었으며,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에 근거해서 이론을 개발해 나가는 질적연구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8). 따라서 본 논문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한 돌봄 제공자의 경험이라는 실제영역에서 수집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개념의 형성과 개발, 그리고 개념들의 수정과 통합을 통해 돌봄 제공자의 경험의 의미체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근거이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개설한지 6개월 이상 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원장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연구에 협조하겠다고 동의한 네 곳의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가정에서 돌보던 노인환자를 시설에 맡긴 후 적어도 6개월 이상 된 주 돌봄 제공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과 익명성 보장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 동안 연구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를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다. 연구 참여자와 연구에 협조해준 노인전문요양시설 원장에게 감사의 보상을 제공했다.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경기도 소재의 1곳과 서울 소재의 3곳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장기요양 노인환자들의 가족 중 입소 전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였던 주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였다. 면담 질문은 비구조적이고 개방형 질문으로 '노인요양시설 입소 결정과 관련하여 돌봄 제공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이었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 1인당 평균 1회 시행하였으며 면담내용의 확인이나 부가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은 전화와 전자메일을 통해 확인하였다. 면담시간은 대략 60분에서 120분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생각하여 선택한 조용한 카페나 참여자의 집 또는 장기요양시설(원장실)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처음 면담을 시작할 때 신변잡기적 주제로 가벼운 대화를 간단히 나누면서 라포를 형성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면담내용을 연구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의 분석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자료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수집하였다. 근거이론방법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개념화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료로부터 이론이 정립되는 핵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코딩은 개방코딩, 축코딩 그리고 선택코딩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코딩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적인 비교분석을 하며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코딩과정에서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관련 서적과 인터넷 사이트 등 2차 자료를 참조하였고 동창회를 비롯한 다양한 모임에서 집이나 시설에서 (시)부모를 모시는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2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일차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2명의 대상자를 추가로 면담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자료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1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도출된 분석 결과를 확인받아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자료수집과 분석 시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모든 필사본을 같이 공유하면서 수차례의 토의를 거쳐 개념과 범주들, 그리고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인 돌봄 제공자는 모두 10명으로, 노인환자와의 관계를 보면 며느리가 4명, 딸이 4명, 아들 1명, 배우자 1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 분포는 40대가 3명, 50대가 5명, 60대가 2명이었고, 학력은 고졸 4명, 대졸 6명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노인환자들을 시설 입소 전 가정에서 모시고 있었거나 혹은 병원에서 시설 입소를 결정하였다. 노인 환자의 진단은 치매 4명, 뇌졸중 4명, 그리고 기타 만성질환 2명이었다. 노인환자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한 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이 2명,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6명, 3년 이상이 2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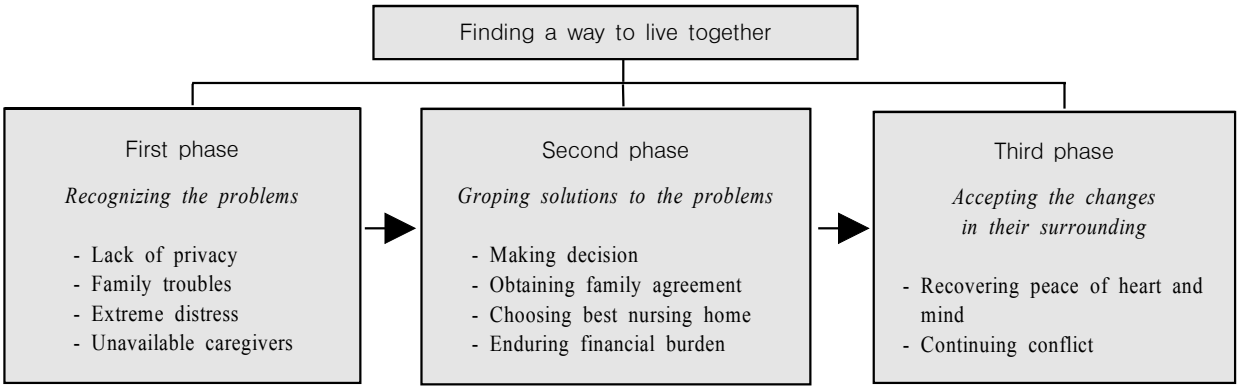
연구의 배경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노인전문요양시설 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 길지 않아 대부분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소규모로 영세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원장들이 자신들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자들의 연구목적 설명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단지 네 곳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원장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노인전문요양시설 원장의 협조 하에 연구 참여자를 소개 받은 후 연구자들은 돌봄 제공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에 또 다시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아직까지도 부모를 가정에서 모셔야 된다는 전통적인 효사상이 돌봄 제공자들 사고의 기저에 깔려 있어 불효에 대한 죄의식과 부정적인 시각 때문으로(Yang, 2002) 생각된다. 더구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장기요양 노인환자의

시설 입소를 결정하기까지 가족 구성원간의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치부를 들어내는 것을 꺼려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를 결정한 연구 참여자들의 용기와 개방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이들의 경험을 통해 시설 입소를 결정한 돌봄 제공자의 경험을 조명해봄으로써 우리사회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추구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연구 결과

장기요양환자의 시설 입소를 결정한 돌봄 제공자의 경험의 중심 개념은 '함께 살아가는 길 찾기'이었다. 참여자들은 집에서 노인환자를 모신다는 것이 환자와 돌봄 제공자 서로에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나날의 연속이며 악순환의 지속이었다. 장기요양환자의 육체적인 돌봄은 물론 돌발적이고 예상치 못한 이상행동으로 가족의 생활 전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전쟁이었고, 참여자들에게는 가정이 편안과 휴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닌 지옥과도 같았다.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참여자들에게 사생활이란 있을 수 없었고, 환자 모시는 것과 관련하여 가족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으며, 이것은 극도의 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family caregivers' experiences utilizing nursing home

<Table 1> Concepts, subcategories, and categories of family caregivers' experiences utilizing nursing home

개념	하위범주	범주
노인의 이상행동, 끝없는 전쟁, 지옥같은 삶, 노인 돌봄과 가정생활 유지의 이중고, 갈 수 없는 가족여행	사생활의 공백	문제인식하기
형제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남편의 폭력, 부부싸움, 자녀교육의 어려움, 가족관계 와해	가정불화	
원치 않는 며느리로서의 도리, 신체증상 및 질병 경험, 가출, 효도와 불효에 대한 심적 갈등, 부모 공경에 대한 역할 모델 의식하기, 스트레스 극복하기	극도의 스트레스	
직업적 간병인 찾기, 입주를 꺼리는 간병인, 과다한 간병비 지출, 간병인도 견디기 어려움, 간병인이 자주 바뀜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움	
현대판 고려장, 주변사람들의 시선 의식, 주변사람들의 비난 감수, 남편의 적극적 의사결정, 문제 해결책 찾기	결단내리기	문제해결책 모색하기
시설입소에 대한 부정적 시각, 가족의 반대, 시댁식구와의 갈등, 노인환자 부양을 떠맡을 형제자매가 없음, 남자형제와 여자형제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 차이, 가족회의 소집, 가족의 시설방문 독려, 시설입소를 비밀리에 진행, 친척에게 선의의 거짓말하기, 환자로부터 시설입소 동의받기	가족의 동의구하기	
시설에 대한 정보수집하기,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 수소문하기, 시설 직접 방문하기, 시설선택 기준 정하기, 시설장에 대한 신뢰, 간호의 전문성 높이 평가하기	시설선택하기	
장남이 경제적 부담 떠맡기, 능력있는 사람이 떠맡기, 다른 가족에게 서운한 마음, 보험과 연금으로 해결, 자녀 교육비 걱정, 노후대책 걱정, 고비용이나 견딜만함	경제적 부담 견디기	
육체적 편안함, 되찾은 시간적 여유, 원만해진 가족관계, 심리적 안정, 부부관계의 호전, 가족여행 가기, 시설 입소에 대한 노인 환자의 적응과 만족, 시설원장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제공되는 간호에 만족, 진정한 효도 되새기기	평정 되찾기	변화된 환경 받아들이기
불효에 대한 양가감정, 정기적 면회의 부담, 경제적 부담, 노인 환자 임종에 대한 불안, 희망없는 노인 환자 상태에 대한 체념	끊임없이 갈등하기	

트레스가 되어 급기야는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참여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생활유지와 노인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이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은 장기요양 노인환자와 돌봄 제공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했고, 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가족들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결단에 가족들이 이해하고 따라와 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모색하였다. 결국 돌봄 제공자들은 가족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심사숙고하여 선택한 노인요양원으로 노인 환자를 모셨다. 참여자들은 장기요양 노인환자를 시설에 입소시킨 후 자신 및 가족의 변화된 환경을 받아들이고 예전 생활의 평정을 되찾게 되었다. 그렇지만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면회 가기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 있어 물리적인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었지만 노인요양 시설 입소 전의 정신적 고통과 갈등에서는 크게 벗어날 수 있었다 <Figure 1, Table 1>.

문제인식하기

● 사생활 공백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뇌졸중 환자와 치매 환자를 집안에서 돌보았는데 이는 여러 면에서 생활의 제약이 많았다. 이런 장기요양 환자와 함께하는 참여자들의 일상은 참여자들에게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는 고문이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치매환자에게 기본간호를 제공하고 치매환자의 이상행동을 뒤치다꺼리하면서 한 집에서 환자와 함께하는 삶을 '끝없는 전쟁' 또는 '지옥 같은 삶'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참여자들은 대소변을 수발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였다. 환자의 치매증상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말과 욕하기, 소리 지르기, 거짓말하기, 벽에다 똥칠하기, 가출하기, 옷 벗기, 밤중에 침실 들어오기, 의심하기, 며느리 험담하기, 이유 없이 트집 잡기, 물건 감추기 등 다양하였다. 돌봄 제공자들은 파출소에서 환자를 모시고 오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이러한 환자의 치매증상은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 시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도화선이 되었다.

똥 치우느라고, 하루 종일 똥 치우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냄새가 나서, 역겨워서 밥도 못 먹고.. 다 토하고, 아무리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참여자들은 자가 간호를 할 수 없는 환자 때문에 자신의 일상에 집중할 수 없었고 항상 불안한 마음뿐이었다. 참여자들은 직장에 출근을 해도 항상 마음은 집안에 있는 환자에게 가 있었고, 밖에서 일을 보다가도 집에 와서 환자를 챙기고 다시 외출을 하였다. 한 참여자는 환자를 집에 두고는 집 앞 구멍가게도 못 갔다고 말하였으며 어떤 참여자는 꼭 시간을 지켜서 집에 가야 했기 때문에 세시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고 했다.

아침밥 주고 엄마 점심되기 전에 은행 갔다 오고 또 점심에 애들 데리러 가고.. 우리 친구들 중에 내 별명이 세시야 세시! 세시만 되면 미친 듯이 뛰어 들어가니까 저녁때면 또 뛰어 들어가고.. 엄마는 움직이질 못하니까 혼자 있어요.

또한 참여자들은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다닌 적도 없고 부부생활도 할 수 없었다. 집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동안은 온전한 가족생활이 없었으며 장기노인환자를 돌보는 것 때문에 자녀들의 희생에 기특함, 안타까움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가족끼리 어디가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이만큼 클 때까지도 가족여행은 꿈도 못 꿨지요. 잠시라도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불쌍했어요.

● 가정불화

노인환자를 집에서 모시는 것은 부부관계, 시댁식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야기 시켰다. 며느리들은 부모를 모시는 것이 자식으로서 도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병든 부모를 집에서 모시자는 남편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 치다꺼리의 힘든 상황에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내나 며느리의 노고를 가족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잘 모시지 못한다는 비난이 잦아지면서 가정불화가 시작되었다.

어머니와 같이 사는 거, 그거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가족은 풍비박산되고, 형제간의리는 다 상하고.. 큰형하고도 안 만나요. 안 보고 살아요.

가정불화에 남편의 성향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평소 관계에 따라 갈등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던 경우 며느리는 평소 건강했을 때의 시어머니의 행동까지 연결해서 유난스럽다, 유치하다, 난리굿이라는 등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비난하였다.

시어머니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정 떨어져요, 아무리 병이라 하더라도 저런 시어머니한테 내가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똥 닦아주면서까지 모셔야 하나 싶거든요.

가정불화의 일면은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부부싸움을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자는 남편의 폭력은 죽고 싶은 순간들의 연속이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쁜 며느리가 되더라도 노인환자를 모시는 것은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에서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애들 아빠는 너도 노인 돼봐라. 너도 노인 되면 그렇게 될 거다 (중략) 그게 이론적으로는 딱딱 맞지만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니 어머니 니가 잘 모셔, 난 아니야! 제가 집을 나가기도 했어요. 잠적을 한 거죠. 한 달 동안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하고...

그러나 친엄마를 간호한 딸의 경우는 며느리의 경우와 달랐다. 물론 이 경우에 장모를 모시는 것에 대한 남편의 충분한 이해가 있었고 자신이 딸이었으니까 간호할 수 있었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였으면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26년이지요. 다들 놀라요. 내가 며느리였으면, 시어머니였으면 어느 순간에라도 나 못 하겠어 하겠지만 우리 엄마니까 할 수 없잖아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중략) 내 엄마니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그랬던 세월이죠

한편 이성의 시아버지 간호는 동성의 시어머니 간호보다 더 힘듦을 한 참여자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시아버지를 씻긴다던지 시아버지의 이상행동에 민망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목욕은 남편이 맡아서 해 주었고 더구나 대학생이 된 딸들과 시아버지와 한 집에 사는 것은 어려움이 많아 딸들 교육에 신경이 쓰였다고 하였다.

시어머님도 아니고 시아버지기 때문에 아래를 맨날 들춰서 내가 봐야 되는 거. 그거는 정신이 없으면 모르지만 정신이 있기 때문에. 남편도 그거는 원하지 않고.. 시아버지의 최소한의 자존심.....

● 극도의 스트레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가정에서 며느리의 위치에 있었다. 참여자들은 노인환자를 집에서 모시는 것이 항상 힘든 짐이었지만 며느리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의 고충을 드러내어 말하기보다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참여자들에게는 시집살이의 연속이었고 평생의 업보로 생각되었다. 한 참여자는 똑같이 아픈 친정 부모님도 계신데, 친정 부모 간호는 못 하면서 시부모를 간호한다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고 억울하였다고 했다.

항상 짐이었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세상에 좋은 것도 없고 뭘 봐도 인생이 뭐가 그렇게 즐겁니? 맨날 그랬어요.

어떤 참여자는 '효도상을 받은 며느리도 속으로는 몸과 마음이 썩어 문들어진다.'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표현하였다. 극도의 스트레스는 참여자들에게 건망증과 집중력 부족, 원형탈모증, 대장 폴립, 우울증 그리고 안면신경마비 등과 같은 질병을 일으켰다.

저는 안면마비랑 우울증 때문에 떨어져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10층인데 모자를 거꾸로 놓고 앞으로 떨어지면 무서우니까 뒤로 떨어져서 죽을까. 아니면 한강에 차를 새벽 두시에 끌고 가서 내가 한번 죽나.

참여자들이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에도 견디고 있었던 것은 부모를 모시는 것과 관련하여 자기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좋은 역할모델이 되고 싶었고 이런 자식들은 참여자의 삶에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뼈를 갈아서까지 효도를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이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은 했어요. 연쇄반응이거든요. 내가 그동안 이 고리를 끊지 못했던 것은 내가 늙었을 때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싶어서, 그게 두려웠어요(먼 산을 바라보며 움)

그러나 참여자들은 건강의 위험신호를 받으면서 자신을 추스르고 자신이 살기위해서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평소 집안의 대소사에 의사결정을 해 왔던 참여자들은 시설입소를 생각하였지만 며느리인 경우 시설 입소에 대해 차마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생활에서 되도록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골치 아픈 것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쁜 것,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면서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였다.

●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움

참여자들은 과다한 경제적 지출을 감수하더라도 간병인을 활용하고 싶었으나 간병인을 구하기조차 어려웠다. 참여자들은 아무리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간호를 잘 해도 자신들이 감당하기 힘든, 위생 간호라든지 욕창간호 등은 간호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참여자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로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직업적인 간병인을 가정에서 활용하고 싶었지만 가정에 입주를 원하는 간병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간병인들은 참여자의 가족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어 일반 가정집 입주를 꺼렸으며, 설사 입주를 한다 해도 경제적인 보상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였다. 그러나 어렵게 구한 간병인도 환자의 치매증상으로 인해 행동의 오해를 받게 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어 쉽게 그만두었다. 참여자들은 간병인이 그만 두겠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간병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책없는 노인환자 간호에 너무나 난감하였다.

간병하는 분이 나 그만둬야겠어요 하면, 제가 그걸 그분한테 어쩜 그러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들어요.

문제해결책 모색하기

● 결단내리기

참여자들은 요양시설 입소를 결심했지만 참여자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착잡했고 여전히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시설 입소 결정은 현대판 고려장으로 참여자 자신이 갖고 있는 효 개념에 위배되는 행위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모시고 있다가 시설로 모시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효한다는 비난을 모면할 길이 없고 이것은 지금까지 부모님을 잘 모셔왔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이었으며 자신의 체면이 서지 않는 행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곳에 갖다 모셨다가는 진짜 버렸다는 소리 듣겠어.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다가 망설이고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대부분의 참여자들의 경우, 노인환자의 시설 입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 하였다. 남편들은 자신의 부모를 모시는데 시설 입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방된 태도를 가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아내들은 남편을 따라가는 입장을 보였다.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며느리의 도리를 못하는 것 같아 시설 입소를 내켜하지 않는 아내를 남편이 권유하고 설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며느리가 시부모의 시설 입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때는 남편이나 시댁식구들과 갈등이 빚어졌다.

저보다는 남편이 더. 이거는 아버지는 그런 기관에서 모셔야 되는 게 예의다. 우리는 음. 굉장히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죠. 이건 뭐, 너싱홈에 모시는 거는 부끄럽다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내 가정도 소중하니깐. 그리고 저를 많이 배려해준 거죠.

노인요양시설 입소는 집에서 간호할 때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예를 들면, 가족끼리 휴가도 못 가는 상황에서 숨통이라도 트이기 위해서, 돌봄 제공자도 환자인 경우 돌볼 사람이 없어서 등의 이유가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최악의 경우 잦은 가정불화 끝에 남편이 아내를 비방하면서 남편은 내키지는 않지만 시설 입소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엄마 걱정 마 좋은데 모셔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있어 하더니 대뜸 나한테 X같은 X하면서 욕을 하더니 저런데다가 모시면 몇 천을 벌겠다. 니보다 백배 낫다 하면서 그 길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 가족의 동의구하기

시설 입소에 대한 가족의 반대는 직접 환자를 모시지 않는 남편의 여자 형제들이나 집안의 어른들에 의해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환자를 모시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겪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인 부양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시설 입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반대하면서 노인환자를 모시는 것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였다.

내가 남편을 이리로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만일에 형제분 중에 누구라도 내가 모시고 싶다는 분 계시면, 내가 경제적으로는 다 지원할 테니까 모셔도 좋다. 막상 그럴 때는 아무도 나서서 한다고 안 하시더라고요(중략) 단순히 자기 일이 아닌 한 발 먼 딴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은 안 지려고 하거든요.

시설 입소가 끝난 후에도 가족들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한 참여자는 친척들로부터 '신랑이 돈 잘 버니까 돈 지랄한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였다. 특히 여자 형제들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감정적인 애틋함이 먼저 앞서 객관적인 사고나 판단을 못하는 반면, 남자 형제들은 자신들도 환자를 모실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설 입소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반면에 친척들 사이에서 남편이 효자로 정평이 나 있을 때는 효자 아들에 대한 신뢰로 가족들이 쉽게 동의하였고 간호할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 참여자의 시설 입소 결정을 친척들도 잘 했다고 하면서 이해해 주었다.

위낙 아들이 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시자 그러면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해서 반대 반대하신 분은 없어요.

참여자들은 시설 입소를 반대하는 가족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략적 접근을 하였다. 참여자들이 사용한 전략 중의 하나는 참여자들은 가족회의를 소집하여 모실 사람이 있는지 가족의 의사 타진을 하면서 조심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시설 입소를 유도했다. 또 다른 참여자들은 일단 비밀리에 환자를 입소시킨 후 나중에 환자가 계시는 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직계가족들의 이해는 이러한 방법으로 가능하였으나 집안 어른들에게 알리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비밀을 유지하였다. 한 집안의 종손인 한 참여자는 아직까지도 명절이나 집안 행사시 집안 어른들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하였다. 또한 반대하는 가족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방법도 이용하였다.

그래 다 와 봤어. 와 보니 다 만족했어. 만족하면서도 맘에는 좀 덜 차지. 그래도 형을 원망하지 않더라고. 아무데나 막

갖다 내 팽개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받은 거라.

한편 환자가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환자로부터 시설 입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집에 있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시설 입소에 대해 환자를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참여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살 집이 없어져서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든지 한시적으로 며칠만 계시면 된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환자를 설득하였다. 반면에 환자가 순순히 동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때는 환자가 시설 입소를 위해 스스로 짐을 싸기도 하였다.

며칠만 가 계세요 거짓말 했지. 아휴 어림도 없어요 그 허락 받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 답을 안 주셔가지고 본인은 뭐 펄쩍뛰고 싫다고 '어.. 내 아들네 집 두고 어딜 가냐고..' 또 그런 말씀 드릴 때는 정신이 또 말짱하셔.

● 요양시설 선택하기

참여자들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결심한 후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남편이 시설 입소를 결단하였기 때문에 정보수집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였다. 정보수집은 일가친척들이 모르게 대부분 비밀로 하였다. 참여자들은 주로 신문의 시설에 대한 선전 전단이나, 가까운 지인, 혹은 관공서를 통해서 시설을 수소문하여 직접 방문하였다.

안 가본 데 없어요 비밀리에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경기도 이 서울 가까운 일대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재가노인복지회관도 한번 가보고..

참여자들은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곳을 선호하였다. 노인병원과 같이 열악한 시설을 돌아보고는 시설 입소 결정을 다시 고려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참여자들의 시설 선택의 기준은 집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요양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노인병원은 공장같은 느낌이었지만 요양시설은 소규모이지만 깨끗하고 주변 환경이 참 좋은 느낌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가족들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환자에게 주어 집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먼저 자신들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 편안한 느낌을 받고 시설 원장과의 첫 면담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였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그냥 가정 같은 분위기를 많이 우선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나가는 곳을 찾게 된 거죠 병원 같은 거 말고

또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은 시설의 원장의 직업적 전문성과 인간적인 신뢰이었다. 참여자들의 시설선택의 기준은 시설 원장의 전문직 경력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중환자실 근무 경력과 같은 전문 의료 경력이 많은 원장에게 안심하고 환자를 맡길 수 있었고 원장의 전문직 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좋은 평가를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원장이 항상 웃는 모습으로 환자들에게 사랑과 정성이 넘치는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서 시설을 선택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환자를 집에서 모시는 것 이상으로 시설에서 잘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친밀감이라든지 아니면 대충 사업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여 골라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직접 가보니까 정말 거기 선생님이 우리 아버님을 업고 올라가셨어요 그 층계를. 아 정말 이거 맡기면 좋겠다 해서.

● 경제적 부담 견디기

참여자들은 시설 입소 후 부가되는 경제적 부담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경제적 부담을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느냐가 모든 가족들에게 문제가 되었고 이것은 가정불화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집안의 장남 혹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 주로 경제적인 부담을 담당했고 주로 재원은 월급여, 보험금, 그리고 연금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전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 표면적으로는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부담을 당연히 생각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젠 나도 인생을 살고 싶은데, 결국은 나만 피해를 보게 돼요 형제가 여럿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이 많은 걸 다 부담해야 하니 결국은 나만 죽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맡긴 어떤 참여자는 은퇴 후 지급받는 연금 중 거의 대부분을 노인전문요양시설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생활 규모에 비해 매월 지불되는 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소로 인한 편함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집에서 환자를 모셨을 때 드는 비용과 시설에 모셨을 때 드는 비용을 비교해 볼 때 시설에서 모시는 것이 다소 비싸고 부담이 되더라도 비용-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시설에 매월 내는 비용이 참여자들에게 큰돈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자신을 비롯한 가족이 얻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돈도 돈이지만, 약값이랑 이것저것 합치면 한 달에 200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차라리 이게 낫다 싶어요 이보다 더 못할 때도 살았는데, 땅 한 자락 없다 생각하면 더 편해요 내가 있어야 재산도 있는 거지, 나 없으면 돈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부담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다. 어떤 참여자는 자신이 시설에 모실 정도의 여유가 있음을 자위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어떤 참여자는 자녀 교육비 충당과 함께 시설 입소 비용을 매월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후 대책을 할 여유가 없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국가적 차원의 지원 확대로 해결되기를 희망하였다.

변화된 환경 받아들이기

● 평정 되찾기

참여자들은 장기요양 노인환자가 시설에 입소한 후 육체적인 편안함과 함께 시간적으로 많은 여유가 생겼다. 또한 참여자들은 가족관계가 원만해지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되었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걱정이 없어짐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덜 하게 되었고 자신의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가정생활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심리적 부담이 없어 자유롭게 참여자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도 좋았다.

집에서 모시고 있을 때보다 가정이 좀 밝아졌지요... 하루 종일 어머니한테 매달렸는데 그러면 애들한테 화풀이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집이 밝아졌고, 일단 내가 해방됐다는 것

한편 환자도 점차 노인요양시설에 적응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이제는 다시 환자를 집으로 모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보기에 환자들이 시설에 있는 것에 대해 점점 감사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 집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편안해 한다고 하였다. 어떤 환자는 시설을 요양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의료기관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잘 받고자 하였으며 어떤 환자는 시설에 입소하자마자 시설이 너무 좋아서 집에 안 가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환자들의 반응에 참여자들은 놀랐으며 환자들이 시설에 잘 적응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다행스럽기도 하였다.

처음에 이런데 보냈다고 뭐라고 했거든요. OO아 내가 싫어? 처음엔 이러더니... 이젠 고맙다고 이렇게 비싼 곳에서 나를 이렇게 해 주니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자들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후에 시설의 원장과 환자의 질병상태부터 가정사까지 직접 상담하거나 전자 메일로 상의를 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이제는 시설을 완전히 믿고 환자를 맡기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을 방문해도 초기 입소 시에 하였던 행동들, 즉 간호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자 및 시설의 환경을 유심히 살펴본다든지, 원장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행동들은 안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은 시설 입소에 만족하고 있어서 단기 입소를 결정하고 입소한 경우 생각을 바꾸어 환자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계시는 장기 입소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말하였으며, 어떤 참여자는 현재 시설의 원장이 자신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자신도 가까운 미래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락을 주시고 어떤 때는 메일로도 연락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나도 여기 홈페이지 자주 드나들고

참여자들은 이제 집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것만이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으며 환자를 시설에 맡긴 것은 자신들의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간호에 만족하였으며 가끔 방문하는 가족들도 시설의 환자 간호 제공과 환경에 변함없이 만족감을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은 참여자들이 더욱 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고하게 해 주었다. 참여자들은 시설 입소가 환자와 참여자 피차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즉 환자가 시설에서 안정을 찾고 더불어 참여자 자신과 가정이 건강하게 되었다. 환자의 시설 입소는 참여자들에게 진정한 효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꼭 옆에 끼고 있다고 해서 그게 효도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맘 편하게 해 주는 게 효잔거야. 맘 편하게 해 주는 거

● 끊임없이 갈등하기

참여자들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후 집에서 환자를 모실 때보다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 한결 편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계속하였다.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문제, 정규적인 면회나 노인환자를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이 자식으로서 불효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양가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으며, 예기치 않은 환자 상태의 변화에 대한 불안 등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하였다.

할머니한테만 한 달에 200만원 더 들어가요.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사실 전 매달 적자예요. 마이너스로 나가자빠지거든요. 그 돈, 애들이 더 공부를 하게 될 때를 위해서도 그렇고, 애들 결혼도 준비하려면 저축도 해야 하는데, 할머니한테 다 쏟아 붓고 있으니

한편 참여자들에게 환자 면회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매주 규칙적으로 방문하다가 이

제는 여유 되는 대로 방문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1주일이 너무 빨리 온다고 하면서 면회의 부담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예전 마음 같지 않게 환자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솔직히 고백했으며 주말에 다른 일이 있게 되면 면회는 뒷전으로 밀어놓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환자 상태에 따라 면회의 질이 달랐다. 노환이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나빠지기 마련인 환자 상태에 체념을 하면서부터 의미 없는 면회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참여자들의 면회 횟수가 줄고, 면회 가서도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시간도 줄어 면회시간이 매우 단축되었다.

눈에 안 보이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솔직히 있어. 그럼 얼른 또 안 되겠다 하고 얼른 갔다 오고

참여자들은 시설에 모신 것을 한편으로는 잘 했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으로서 도리를 못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자책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환자가 쓰던 방문을 열다가, 혹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노모를 잘 모시는 것을 보게 될 때 특히 양가감정을 많이 가졌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환자를 집에서 모시면서 발생되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효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무의식 상태로 연명만 하고 있는 환자 간호에 시설 입소가 집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쪽에는 늘 서운하고 불효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놀라기도 하지만 보통 생각은 야. 잘 모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참여자들은 환자를 시설에 모셨다고 해서 항상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언제 환자 상태가 변할지 몰라 환자의 임종을 생각하면서 늘 불안한 마음이었고 기약 없이 생명만 연명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연민과 회의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차라리 환자가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기를 바랐다.

그 아버지를 지켜보는 게 힘들었고 생명의 존엄성이라지만 차라리 저렇게 사실 바에는 우리에게 두고두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그걸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논 의

본 연구는 장기요양 노인환자를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시킨 돌봄 제공자의 심층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실제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경험하였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적응해 왔는가를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 근거이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장기요양 노인환자의 시설 입소를 결정한 돌봄 제공자의 경험의 핵심범주는 '함께 살아가는 길 찾기'이었다. 이는 돌봄 제공자들이 장기요양 노인환자의 돌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생활을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노인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최선의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돌봄 제공자들이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노인환자를 맡기는 경험은 문제인식하기, 문제해결책 모색하기, 그리고 변화된 환경 받아들이기의 3단계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돌봄 과정을 '위기에서 생존'으로 제시한 Wilson(198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Wilson(1989)은 치매노인을 맡기로 하는 수락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돌봄을 해나가는 진행기, 가족들이 치매노인을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하는 종료기 등으로 제시하였다. Wilson(1989)은 돌봄 제공자들은 돌봄 초기에 가정에서 노인환자의 돌봄을 시도해보지만 역부족임을 인식하고 마지막에는 포기와 체념으로 시설로 노인환자를 보내는 부정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의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후 결과적으로 시설 입소는 연구 참여자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노인환자 모두를 위해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돌봄의 부정적 선택이라기보다 노인환자와 돌봄 제공자 자신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노인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의 기능은 물론 가족의 역할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질병기간이 길수록,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부담은 증가되고 가족의 기능은 역으로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데(Given & Given, 1991; Kim & Lee, 1998; Kim, 2001) 본 연구결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잘 드러났다. 첫 번째 단계인 문제인식하기 단계에서 사생활의 공백, 가정불화,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 등이 주요한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개념들은 Schur 등(2005)이 언급하였던 돌봄 제공자의 정서와 심리상태의 희생을 심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문제인식하기 단계에서 가정불화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심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다. 주 돌봄 제공자가 며느리인 경우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우리나라 가족관계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었다. 여성은 가족이 인정해 주지 않는 돌봄을 제공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돌봄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가족이기주의에 희생된 돌봄(Yih, Kim, & Yi, 2004)을 제공하고 있었다. 즉 본 연구 참여자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효의 실천과 관련된 자기희생적인 인고, 자기 자식에 대한 좋은 역할 모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의 역할, 친정부모에 대한 자녀로서의 역할 등에서 자신의 무기력함과 분노를 느꼈고, 가출과 같은 소극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g 등(1999)도 며느리들의 삶을 죄책감과 분노의 양가감정, 며느리의 억압된 삶, 남편과 가족의 이해부족, 치매노인에 대한 미움과 자신의 삶 포기로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장기요양 노인환자의 돌봄은 여성에게만 강요된 희생이 아닌 가족 중심의 대처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 구성원의 경험을 이해하고 기술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가족 역동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재가 노인환자를 간호하고 있는 돌봄 제공자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돌봄 제공자의 역할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인 도움 제공하기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근 돌봄 제공자의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가정간호,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등의 활성화를 통한 휴식간호(respite care) 제공의(Jeon, Brodaty, & Chesterson, 2005)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해결책 모색하기 단계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결정권자는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아들이나 며느리로 Yang (2002)의 연구에서도 아들이었다고 한 것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주 돌봄 제공자들은 직접 돌봄 제공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 가족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점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도 가족 구성원의 요양시설 입소 결정에 대한 심층의 경험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가족 역동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된 환경 받아들이기 단계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돌봄 제공자뿐만 아니라 노인환자도 시설 입소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 제공자와 노인 환자가 함께 살아가는 길을 잘 찾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시설노인의 적응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거부감 다스리기(Lee, 2002)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나 만성질환자의 배우자 경험의 결과를 동반자 의식으로 제시한 Choi와 Eun(2000)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였다. Lee(2002)의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했던 요양시설은 양로원, 요양원, 실비요양원으로 다양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치매나 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인 너싱홈으로서 이곳은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입소하기 때문에 두 연구에서 나타난 노인의 경험의 폭이 달랐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Choi와 Eun (2000)이 제시하고 있는 동반자 의식은 배우자의 의미가 그렇듯 평생을 같이 할 사람으로 환자의 질병경험에 개입하고 돌보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는 연구 참여자와 노인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후 현실에 만족하고 평온을 되찾으면서 서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시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는 변화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

노인환자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연구결과를(Yang, 2002) 본 연구결과가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노인환자들은 돌봄 제공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자신들은 좋은 곳에서 치료를 받게 해 주는 것에 만족해하고 있어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가 돌봄을 제공받아야 하는 당사자인 노인환자의 의식이 긍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돌봄 제공자의 돌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 참여자들의 노인요양시설 선택과 지속적인 이용에 시설 원장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시설의 원장은 돌봄 제공자의 든든한 후원자로, 의사결정 도우미 및 돌봄 안내자로 좋은 역할모델이 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설 원장의 직업적 전문성, 인간적인 신뢰, 그리고 사랑과 봉사정신의 실천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설 원장과의 원만한 의사소통 채널의 형성과 전문간호 제공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장기요양 노인환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 돌봄 제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환자들이 좋은 시설에서 간호를 제공받기를 원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는 Yang(2002)의 연구에서 '요양시설 입소 비용'이 가장 주요한 간호요양원의 속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였다. 따라서 2008년에 시행될 노인요양보험의 확대와 적용으로 많은 장기요양 노인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돌봄 제공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기요양 노인환자의 노인전문요양원 입소를 결정한 돌봄 제공자의 경험의 의미체계를 기술하고 실체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근거이론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도의 노인전문요양 시설에 노인환자를 6개월 이상 입소시키고 있는 돌봄 제공자 10명이었다. 자료는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분석절차를 적용하였다. 장기요양 노인환자의 노인전문요양원 입소를 결정한 돌봄 제공자의 경험의 핵심범주는 '함께 살아가는 길 찾기' 이었다. 이는 노인환자 돌봄에서 오는 지옥같은 삶에서 돌봄 제공자를 포함함 가족과 노인환자 모두가 안정과 평안을 되찾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서로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의식의

확대이었다. 함께 살아가는 길 찾기의 기본사회화과정은 문제인식하기, 문제해결책 모색하기, 변화된 환경 받아들이기의 3단계로 나타났다. 문제인식하기 단계에서는 사생활의 공백, 가정불화, 극도의 스트레스,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움 등의 개념들이 도출되었다. 문제해결책 모색하기 단계에서 확인된 개념은 결단내리기, 가족의 동의구하기, 요양시설 선택하기, 경제적 부담 견디기 등이었다. 변화된 환경 받아들이기 단계에서는 평정 되찾기, 끊임없이 갈등하기가 주요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 장기요양 노인환자의 요양시설 입소 결정과 관련하여 완전하고 포괄적인 가족 역동을 이해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ces

Andrén, S., & Elmståhl, S. (2005). Family caregivers' subjective experiences of satisfaction in dementia care: Aspects of burden, subjective health and sense of coherence. *Scand J Caring Sci, 19*(2), 157-168.

Choi, K. S., & Eun, Y. (2000). A theory construction on the care experience for spouses of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 *J Korean Acad Nurs, 30*(1), 122-136.

Eloise, S. E. (1994). *Support group participation and subjective well-bing among caregivers of stroke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Denver.

Given, B. A., & Given, C. W. (1991). Family caregiving for the elderly. In J. J Fitzpatrick, R. L. Tauton, & A. K. Jacox(Eds.), *Annual review of nursing research*. New York: Springer.

Jeon, Y. H., Brodaty, H., & Chesterson, J. (2005). Respite care for caregivers and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 Literature review. *J Adv Nurs, 49*(3), 297-306.

Kang, H. S., Go, K. J., Kim, W. O., Kim, E. S., Kim. S. Y., Kim, H. L, Shin, S. O., Oh, S., E, Won, J. S., Li, C. Y., Jung, M., & Choe, N. H. (1999). The lives of daughters-in-law who care for parents with dementia. *J Korean Acad Nurs, 29*(6), 1233-1243.

Kim, C. M. (2001). *The coping process of family caregivers for demented elderly at hom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im, K. B., & Lee, K. H. (1998). Ethnography of caring experience for the senile dementia. *J Korean Acad Nurs, 28*(4), 1047-1059.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Future population in KNSO news*. Retrieved December 15, 2006, from the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b site: http://www.nso.go.kr

Lee, G. E. (2002).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the adjustment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The control of reluctance. *J Korean Acad Nurs, 32*(5), 624-632.

Lee, S. Y. (2004).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health management system for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87*(1) 72-8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4). *An opinion of the request for reforming regulations to establish nursing home in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Retrieved December 15, 2006,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b site: http://www.e-welfare.go.kr

Schur, D., Whitlatch, C. J., & Clark, P. A. (2005). Beyond the chi-square: Caregivers are more than just faceless statistics. *Lippincotts Case Manag, 10*(2), 65-71.

Touhy, T. A., ND., A., BC., Brown, C., & Smith, C. J. (2005). Spiritual caring : End of life in a nursing home. *J Gerontol Nurs, 31*(9), 27-35.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Sage.

Van Exel, N. J. A., Koopmanschap, M. A. Van den Berg, B., Brouwer, W. B. F., & Van den Bos, G. A. M. (2005). Burden of informal caregiving for stroke patients. *Cerebrovasc Dis, 19*(1), 11-17.

Yang, S. H. (2002). *A study to identify the attributes of nursing homes for elderly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Yih, B. S., Kim, C. M., & Yi, M. S. (2004). Women caregivers' experiences in caring at home for a family member with dementia : A feminist approach. *J Korean Acad Nurs, 34*(5), 881-890.

Wilson, H. S. (1989). Family caregiving for a relative with AD: Coping with negative choices. *Nur Res, 38*(2), 94-98.